

# 제4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2014년 2월 Wall Street에서 만납시다!

세계 금융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글로벌 금융탐방의 기회,  
당신의 빛나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됩니다.

2014년 2월

Wall Street에서 만남시다!  
세계 금융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글로벌 금융탐방의 기회,  
당신의 빛나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됩니다.

## CONTENTS

-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소개
- 추진경과
- 글로벌 금융탐방 소개
- 포토 갤러리
- 글로벌 금융탐방 후기
- 2013 제4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안내



##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소개

### 젊고 활기찬 대학생들이 만들어갈 Wall Street에서의 추억,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은 대학생들의 금융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금융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동부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동부금융네트워크와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한국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논문 공모전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공모전의 수준이나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전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은 타 금융 공모전에 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됩니다.

첫 번째로 2회 때부터 시행된 PT 대회입니다. 두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엄선된 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PT 대회를 갖습니다. PT 대회에서는 심사위원과 동부금융분야 CFO(Chief Financial Officer), 수상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 발표와 심사위원들의 질의, 응답을 통해 논문의 수준을 한번 더 검증하며 아울러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발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논문만의 심사 결과와 PT 대회에서의 심사 결과 상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은 타 공모전과 달리 논문의 수준뿐만 아니라 발표 역량까지 함께 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글로벌 금융탐방 혜택입니다. 상위 입상자들에게 주어지는 '글로벌 금융탐방' 기회는 국내 그 어떤 공모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커다란 특전이라고 자부합니다. 글로벌 금융탐방은 지난 3회 공모전부터 시행됐으며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Wall Street의 선진금융기관 탐방과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모여있는 아이비리그 방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Wall Street 프로그램에서는 Chase Bank, Chubb Insurance, Citi Group, IBM, 동부화재 뉴욕지점 등을 탐방했으며, 아이비리그 프로그램은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MIT 등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글로벌 금융탐방의 특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Wall Street 현지 금융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수상 논문을 영어로 발표하고 토의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예일대에서 수업을 직접 청강하고 현지 유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또한 Wall Street에서 팀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미션데이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직접 뉴욕커가 되어 맨해튼 거리를 걷고 지하철로 이동하고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도 관람하고 현지 음식점을 수상 팀들이 직접 선택하여 방문하는 등 짧은 시간이나마 뉴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직접 심사를 주관하고 글로벌 금융탐방을 기획하고 다녀오면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정말로 멋지고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심사 때는 논문의 수준에 놀랐고 글로벌 금융탐방 때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기찬 그들의 삶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4회 공모전에서 만나게 될 우리 젊고 활기찬 대학생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이 친구들과 함께 쌓아갈 Wall Street에서의 추억에 설렙니다.

내년 2월 Wall Street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함께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동부금융연구소 부사장 유 용 주

## 추진경과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금융 아이디어를 제시한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혀주는 글로벌 금융탐방으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 2012 제3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참가 대상**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공모 주제** 금융 및 관련 분야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세부 주제는 응모자 자율 선정

**시행 절차** 1차 논문·기획안 심사 후 8개 팀 선정  
프레젠테이션 후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결정  
최우수상 1팀 및 우수상 2팀은 글로벌 금융탐방 참가

**시행 일정** 신청서 접수 2012. 6. 1 - 6. 30(이메일 접수)  
응모작 접수 2012. 8. 1 - 8. 30(이메일 접수)  
응모작 심사 2012. 9. 1 - 9. 30  
팀프레젠테이션 대회 및 최종 심사 2012. 10. 27  
글로벌 금융탐방 2013. 1. 26 -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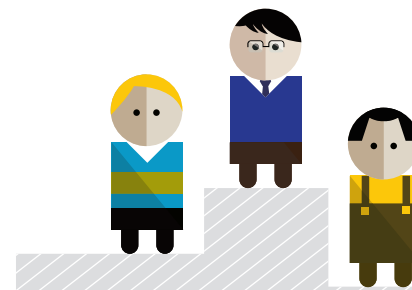
**심사위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원우 교수, CFA한국협회 김성수 회장,  
동부증권 이광열 부사장, 동부금융연구소 유용주 부사장

**시상 내역** 최우수상 1팀 글로벌 금융탐방 및 장학금 500만 원  
우수상 2팀 글로벌 금융탐방 및 장학금 300만 원  
장려상 5팀 장학금 300만 원  
수상자 전원 동부그룹 입사 및 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응모 현황** 총 50개 대학 179팀 신청서 접수, 65팀 작품 응모



수상명	주제	팀원	학교	학과
최우수상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통한 거시경제충격 시 Covered Bond 투자전략 제시	김현성	연세대	경영학
		김두현	연세대	기계공학
		윤지현	이화여대	국제사무학
우수상	예비등급공시제도 폐지가 신용등급쇼핑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오상록	서울대	경영학
		선상엽	서울대	경영학
		박기훈	서울대	경제학
우수상	한국 금융 시장에서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방법론 제안	박세영	포항공대	금융공학
		김경태	포항공대	금융공학
		이현탁	포항공대	금융공학
장려상	동부금융네트워크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박가람	부산대	금융공학
		김의진	부산대	금융공학
		서영진	부산대	금융공학
장려상	단기조정계수 $\alpha$ 를 이용한 효율적 페어트레이딩 전략	이동규	서울시립대	통계학
		강민규	서울시립대	통계학
		나정호	서울시립대	통계학
장려상	투자자의 비합리성을 극복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	조영훈	성균관대	경제학
		오영화	성균관대	경영학
		강동완	경상대	간호학
장려상	보증(Refund Guarantee)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최용준	KAIST	Techno-MBA
		김성훈	KAIST	Techno-MBA
		권재민	KAIST	Techno-MBA
장려상	매매제도개선을 통한 돈육선물시장 활성화 방안	최우석	한국외대	영어학
		곽용정	한국외대	경영학
		백승훈	한국외대	일본어



추진경과

2011  
제2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특징**  
참가자들의 논문작성 능력뿐만 아니라 발표 능력 심사를 위해 팀프레젠테이션 대회를 도입하여 시상식 당일 수상작 최종 결정

**응모 현황**  
총 48개 대학 176팀 신청서 제출, 62팀 작품 응모

수상명	주제	팀장	학교	학과
대상	CNY NDF & CNH Forward 시장분석 및 금융상품 제안서	조진혁	서울대	경영학
최우수상	선박금융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이민재	KAIST	Techno-MBA
최우수상	Open Market을 활용한 새로운 HTS System 제안 - Happy Store	배성민	KAIST	경영공학
우수상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김진원	연세대	경제학
우수상	동아시아 금융시장에서 금융위기·일본대지진의 Regime Switching Effect 연구	김준용	경희대	경영학
우수상	장·단기금리스프레드의 경기 설명력에 관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지수연동예금상품의 설계	전민환	한국외대	경제학
장려상	헤지펀드의 국내도입에 따른 알파분산효과와 전략적 관점에서 알파 효율성 증대를 위한 법률적 검토	백승환	중앙대	로스쿨
장려상	해외 금융그룹 분석을 통한 국내 금융그룹의 해외·신용과생 및 구조화상품을 통한 투자은행 기능강화를 중심으로 진출방안 모색	장태원	서울대	기술경영대학원
장려상	ELW거래에 있어 스캘퍼에게 전용선이 제공된 것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상 적용문제	유지웅	인하대	로스쿨

2010  
제1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특징**  
대학생들의 참신한 금융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상하는 제1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개최

**응모 현황**  
총 48개 대학 82팀 신청서 제출, 27팀 작품 응모

수상명	주제	팀장	학교	학과
최우수상	대출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동부증권 고객센터 경쟁력 강화방안 제안	김준식	한국외대	경영정보학
우수상	Active Share를 통한 포트폴리오의 적정 복제율수준 분석	김영준	고려대	MBA
우수상	한국증권시장의 이슬람 자본 유입과 기업의 성장 Shariah-SPAC	김관중	한국외대	아랍어
장려상	시장적시성(Market-timing)관점에서 바라본 기업의 IPO시기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임은호	성균관대	재무
장려상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금융지원제도 마련에 관한 연구	김장엽	연세대	정보산업공학
장려상	변화하는 미래사회, 농업에서 그 길을 찾다	이여리	고려대	통계학

글로벌 금융탐방 소개

# Global Financial Tour

2013.1.26-2.3

글로벌 금융탐방을 통해 선진 금융의 중심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예비금융인으로서의 전문과 시야를 넓힙니다.



## Financial Tour

**Global 금융사 탐방**

동부화재 N.Y.지점: 동부화재의 Globalization & Localization  
Chase Bank: 은행업의 New Trend를 보다  
Chubb Insurance: 보험산업의 미래  
Citi Group: 파인낸스.. 그것이 알고 싶다  
IBM Consulting: 금융과 IT의 접목

## IVY Tour

**University Tour**

Yale Univ. 현지 학생들과의 간담회 및 Campus Tour  
FSG 방문: 금융의 CSR(사회적책임)을 듣다  
Harvard, MIT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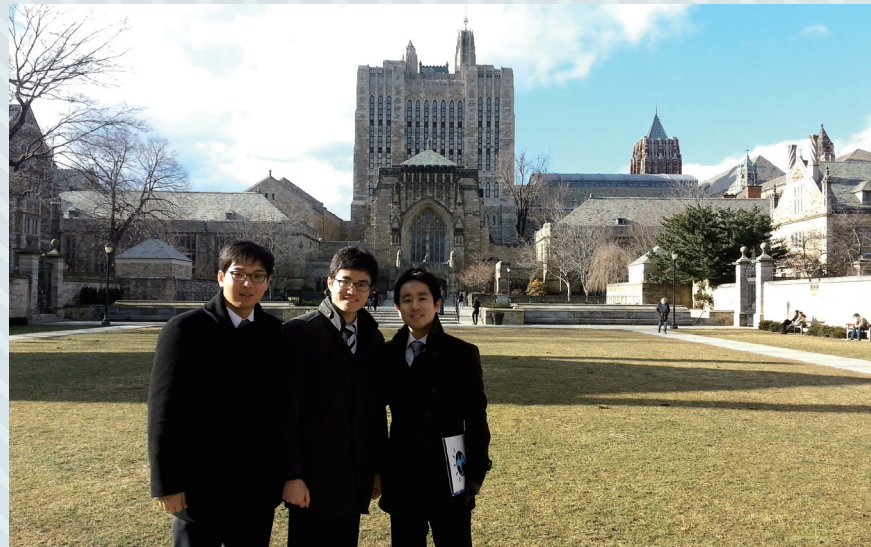
## Mission & Presentation

Manhattan에서 나만의 Mission 수행하기  
공모전 Idea·논문 English PT와Review

글로벌 금융탐방 포토 갤러리

글로벌 금융탐방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낸 참가자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딛  
그들의 뜨거운 순간을 한 컷에 담았다.

다양한 분야의 실무진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세계 금융 기업 탐방, 예일대 학생들과의 만남 등  
미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13년 새해를 맞아 글로벌한 비전과 꿈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우수상팀 포항공과대학교 금융공학 박세영



예일대학교



New York

이번 글로벌 금융탐방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색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직장을 찾기보다는 내가  
다니는 직장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수상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오상록



CHUBB 세미나 현장



IBM에서 '금융과 IT의 접목' 강의

Boston



예일대학교

Washington D.C.



일정 하나하나가 매우 큰 자극이 됐으며,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금융탐방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천하여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최우수상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김현성

# 다시 찾게 된 소중한 꿈



김두현 최우수상팀

## 새로운 기회를 향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꼬박꼬박 투자해 준비한 Wall Street에서의 논문 발표와 세계 유수의 금융사 방문을 위한 리서치 준비가 모두 끝나고 뉴욕으로 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국을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상 직전까지도 본선 진출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대상은 큰 부담이자 감사한 기회였지요. 그래서 이번 글로벌 금융탐방을 통해 일류 환경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논문을 검증받고 내가 대상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국내 금융계와 선진 금융의 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세계 금융의 중심에서 발표를 하다

Wall Street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인 5명이 평가하는 이번 논문 발표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팀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긴 테이블을 좌우로 헤 테이블 한쪽에 논문 발표자들이 팀별로 착석을 했고, 5명의 평가단은 도착하는 순서대로 테이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포항공대, 연세대, 서울대 팀을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고 질문은 한국어로 주고받았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발표를 한다는 생각으로 참가팀들 모두 많은 준비를 했더군요. 우리 팀 또한 예상 질문과 발표 흐름, US 적용 케이스 등을 생각해 효과적으로 논문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팀은 평가자들이 발표자가 학부생임을 고려해 객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 심사할 것이라 예상하고 수학적 모델에 대한 질문을 대비해 집중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표본 도출 및 의미, 모델 수학적 타당성, US 적용을 위해 수학 모델에 필요한 수정 등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포항공대 팀이 발표를 시작하고 3분 후, 한 심사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표본이나 모델에 대한 질문이 아닌, 모델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P1의 선택 후 발생하는 P2의 확률이 어떻게 P1과 같은가'였지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고, 예상했던 질문 범위와 다른 모델 기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어서 포항공대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당황했습니다. 확률에 대한 질문 후에도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대상을 받고 난 후,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논문이 3분 만에 지적받는 것을 보면서 아직 공부할 것이 까마득히 남았고 논문의 실제적인 실용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관 및 선행 논문들을 조사하고, 숫자들의 의미와 가설의 논리구조들을 점검하며 나름대로 만족했던 생각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단지 학부생의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잘 쓴 것이고, 대상 수상은 동부그룹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이었다는 깨닫게 됐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이 첫 번째 팀에게 했던 날카로운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우리 팀의 경우 무난하게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습니다. 세계 일류 금융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며, 논문 속에 들어 있는 나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 어떤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부족했고 잘못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또 전문가의 수준에서 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사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PT를 계기로 우선 본인이 하려는 일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깊이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은 대부분 모델 자체의 논리성 혹은 숫자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고, 사실 학부생도 이해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경험과 분석 수준이 저회와는 다른 점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 준비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HARVARD, MIT, YALE

예일대학교 한인 학생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예일대 대학원 수업을 청강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청강한 수업은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 중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모델에 대한 내용이었고, 학생들은 간단한 수식을 통해 모델을 정량화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수님이 비뚤비뚤한 글씨로 판서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궁금한 점을 질문했지요. 수강생뿐만 아니라 청강생이었던 우리 일행에게도 질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계 명문대 중의 하나인 예일대 대학원 수업이었지만, 이전의 발표와 같이 큰 수준의 격차를 느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 모습을 보며 영어라는 벽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만약 논문 수상 팀원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유명 대학으로 진학했거나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미국인 못지않게 영어로 유창하게 표현할 줄 알았다면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삼스럽게 영어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생활영어보다는 본인의 지식을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게 됐지요. 국제무대를 꿈꾸는 이들에게 회화 학원을 다니거나 공인영어 시험을 보는 것보다 영문으로 된 전공 공부와 독서, 토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 동부그룹에서 마련해준 기회

논문 발표와 예일대 수업 청강뿐만 아니라 Wall Street에 위치한 Chubb Insurance, Citi Group, J.P. Morgan에서 미국 경제 향후 전망과 회사 이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후 질문을 하고, Enterprising IT 기업계의 선두주자인 IBM에서 새로운 기술 동향에 관해 설명을 듣는 등 이번 탐방은 로또와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8일

동안 설 새 없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던 이번 탐방의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직접 뉴욕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세미나를 통해 의제를 주고받기는 더욱 얻기 어려운 기회이기 때문이지요. 또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회이고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 J.P. Morgan이나 IBM의 본사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팀원들에게는 꿈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경험이었고,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본인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2007년 혼자서 뉴욕 금융사와 아이비리그 대학을 찾아다니며 썼던 꿈을 이번 탐방을 통해 다시 찾게 됐습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며, 내가 생활하고 만나던 사람들이 전부라고 느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보며 2013년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됐지요. 내가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이 될 수도 있고, 같이 경쟁하거나 공부하는 친구가 한국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나 백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번 탐방을 통해

- 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하자
  - ②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자
  - ③ 영문으로 된 교양 및 전공 서적을 읽자
  - ④ 글로벌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영어와 전공 공부 등 기본에 충실한 생활을 하자
- 이렇게 4가지 중요한 목표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훗날 미국에서 공부하며 영어나 한국어로 외국인 친구들에게 나의 생각을 열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런 기회와 꿈을 다시 선물해준 동부그룹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미래의 전환점이 된 최고의 경험



오상록 우수상팀

## 글로벌 금융탐방을 소개합니다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준비 과정과 ‘글로벌 금융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기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탐방’ 프로그램은 동부문화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의 수상팀 중 상위 3팀에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위 3팀은 큰 상금을 받는 것과 함께 약 2주 정도를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에서 지내면서 J.P. Morgan, Chase Bank, Citi Bank, Chubb Insurance Company 등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세계 최고의 금융 회사에 직접 방문해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듣게 됩니다. 회사 내의 각종 토론회나 행사에 초청받아 자유롭게 뉴욕의 금융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지요. 또한 워싱턴을 관광하는 것과 미국 보스턴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도 글로벌 금융탐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매력들이죠.

## 동부만의 차별화된 공모전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홍보가 이뤄집니다. 다른 공모전에 비해 홍보가 잘돼서 누구나 쉽게 공모전 정보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공모전과 비교해 좋았던 점은 사전등록을 한 후 해당 팀이 최종 논문을 제출하기까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준다는 것입니다. 가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공모전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묻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다른 참가자들과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줘 논문을 쓰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만의 특별한 점이라면 논문 심사 후 상이 결정되는 대부분의 논문 공모전과 달리 1차 심사를 통과한 팀들은 동부금융센터에서 논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모전에 참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과 국내 최고의 금융·보험 전문가 그리고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지요. 저 역시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 앞에서 복잡한 논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이때 훈련한 발표 노하우가 정말 큰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동부그룹 임원과 함께하는 식사에서 듣는 피드백 역시 정말 값진 경험이었지요.

## 글로벌 금융탐방을 떠나다

저희 팀은 확률 미분 방정식으로 구성된 모델을 통해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Screening Problem을 풀어난 『예비등급 공시 제도 폐지가 신용등급 쇼핑과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2012년 대회에서 2위로 입상해 글로벌 금융탐방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꿈같은 뉴욕 탐방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에 가서 많이 배우고 얻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한국에서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행 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Wall Street의 호텔과 금융 회사들에서 있을 논문 발표를 영어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 일정 동안 정말 많은 금융회사와 기관 그리고 컨설팅 회사, IBM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기관과 회사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뉴욕에서 있을 테마 탐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행의 일정은 크게 워싱턴에서의 일정, 뉴욕에서의 일정, 보스턴에서의 일정으로 나뉩니다. 워싱턴에서는 가볍게 역사 유적지를 비롯한 주요 여행지를 돌아보며 관광을 합니다. 보스턴에서는 예일과 하버드, MIT 대학에 방문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인 학생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뉴욕에서의 일정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뉴욕

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투자은행과 보험 회사, 동부화재 뉴욕지점에 방문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듣거나 회사 내의 토론회와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생생한 Wall Street 금융회사의 분위기도 파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실무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평소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물론 Wall Street에 진출하는 데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 일생일대의 기회와 경험!

글로벌 금융탐방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절에 넓은 세계에 대한 개안(開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Wall Street에서 금융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고, 직업 선택의 가치관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러한 넓은 세계에 대한 개안은 동부 글로벌 금융탐방 프로그램이 단순히 관광에 그치지 않고 Wall Street의 수많은 금융회사의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발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논문 프레젠테이션과 글로벌 금융탐방 사전 준비 그리고 미국에서의 시간을 함께하고 나면 모두가 정말 친해지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탐방과 탐방 준비 기간 동안 금융이나 경제 분야에 열정을 가진 동기, 선배와 함께 대화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고쳐주면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일대학교의 한인 학생회에서 만난 학생들도 제게는 정말 큰 자극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준비해주시고 현지에서 이끌어주신 유용주 동부금융연구소 부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저희를 돌봐주신 덕분에 많은 가르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이 탐방을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동부그룹에서 글로벌 금융탐방에서

맺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구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탐방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주는 도전적인 자극, 긍정적인 영향, 폭넓은 정보는 탐방이 주는 기쁨과 경험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탐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저의 짧은 소회를 적어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공모전에 참가해서 상금도 받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Wall Street에서의 소중한 경험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학 생활의 큰 전환점이 된 글로벌 금융탐방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동부그룹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13

### 제4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글로벌 금융기관 탐방,  
세계 금융전문가와  
함께하는 열띤 토론,  
새롭게 만들어가는  
글로벌 인맥.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에서  
당신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보세요.



#### 참가 대상

- 1)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2013년 가을학기 기준)  
· 2013년 8월 졸업자 제외  
· 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까지 참가 가능
- 2) 단체(3인 이하) 응모 가능

#### 공모 주제

금융 및 관련 분야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방안으로  
① 은행·보험분야, ② 증권·자산·기타 분야 중 선택  
세부 주제는 응모자 자율 선정

#### 공모 일정

신청서 접수 2013. 6. 1 - 6. 30  
응모작 접수 2013. 8. 1 - 8. 31  
응모작 심사 2013. 9. 1 - 9. 30  
1차 심사 발표 2013. 10월 초  
팀프레젠테이션 대회 및 시상식 개최 2013. 10월 중순  
글로벌 금융탐방 2014. 2월 초

#### 시상 내역

구분	은행·보험	증권·자산·기타	시상금
최우수상	1팀		500만 원
우수상	1팀	1팀	각 300만 원
장려상	2~3팀	2~3팀	각 300만 원

평가 기준에 미달 시, 일부 미선발 가능

#### 시상 특전

글로벌 금융탐방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및 장려상 中 1팀  
(팀당 최대 2명)  
입상자 전원에게 동부그룹 입사·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

#### 문의처

Tel. 02-3011-5543 E-mail. [idea@dongbu.com](mailto:idea@dongbu.com)  
Website. [www.dongbufoundation.or.kr](http://www.dongbufoundation.or.kr)  
자세한 사항은 동부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끊임없이 탐구하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도전하며,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젊은 대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지원합니다.



